

이번엔 골프...KLPGA 챔피언십 14일 개막



박성현

5개월만에 메이저대회로 재개
총상금 30억원...역대 최대 규모
박성현·이정은·김세영 등 총출동
방역 대책 마련...무관중 경기로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드물게 프로야구와 프로 축구가 개막하며 시선을 끈 한국 스포츠의 열기가 이번엔 골프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한국 여자골프가 주요 프로골프투어 중 가장 먼저 재개를 알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14~17일 경기도 양주 레이아웃 컨트리클럽(파72·6540야드)에서 열리는 제42회 KLPGA 챔피언십으로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효성 챔피언십으로 2020시즌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이다.

이후 국내 개막전으로 예정됐던 지난달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을 시작으로 KLPGA 투어도 코로나19 여파에 줄줄이 대회가 취소됐다. 지난달 말 열리려던 KLPGA 챔피언십도 한 차례 취소됐다가 날짜를 옮겨 개최가 결정됐다.

KLPGA 투어는 잇단 대회 취소에 따른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기금으로 대회를 열기로 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열리는 대회인 만큼 여러 면에서 이번 대회는 '역대급'을 자랑한다.

우선 총상금부터 30억원(우승 상금 2억 2000만원)으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KLPGA 투어가 미국여자프로골프



김세영

(LPGA) 투어 지역 파트너로 참여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200만 달러(약 24억5000만원)로 상금이 가장 많았고, KLPGA 투어 단독 대회로는 하나금융 챔피언십의 15억원이 최고 상금이었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애초 23억원이었으나 회장이인 호반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의 투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대회 협찬사를 맡고 약 4억원을 보태면서 총상금 30억원을 돌파했다.

출전 선수도 KLPGA 투어 사상 최대 인원인 해당하는 '150명'이 나선다.

면면도 화려하다. 세계랭킹 3위 박성현을 필두로 김세영, 이정은, 김효주, 배선우, 안선주, 이보미 등 미국과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한다. 세계랭킹 10위 내의 선수만 해도 3명(3위 박성현, 6위 김세영, 10위 이정은)이다.

지난 시즌 이 대회를 포함해 5승을 쓸어 담고 시상식에선 '6관왕'에 오르며 KLPGA 투어의 새로운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최혜진, 2018년 대회 우승자 장하나 등 국내 무대의 강자들도 시즌 첫 메이저 왕관을 노린다.

아쉬운 건 이들의 경기를 중계방송으로만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대회는 관중 없이 열린다.

KLPGA는 시즌 재개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방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았다.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선수를 비롯해 협회, 대행사, 실행사, 미디어 등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하고,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자가점검표 작성, 손 소독제 배치, 공동 이용공간 소독 등 각종 방역 대책도 마련됐다.

대회를 여는 레이아웃 컨트리클럽도 '워크 스루'형 특수 UV 살균 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레스토랑에 '인식탁'을 준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연합뉴스



이정은

“지방체육회 법인화 서둘러야” 광주·전남체육회, 대한체육회장 간담회서 건의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전남도체육회는 12일 순천시에서 2020년도 대한체육회장-전남(시·군)체육회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무 전남체육회장, 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과 비롯한 22개 시·군체육회장이 참석했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인화 설립 추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단체로서 존립의 가치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창준 광주시 체육회장도 전남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가 법적 지위를 갖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민선시대를 열었으나 재정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옛 관선 회장제대로 체육회 예산의 90% 가량을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체육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역체육회 법인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 국민체육진흥법을



12일 순천시에서 대한체육회장-전남(시·군)체육회 간담회가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무 전남체육회장 등 시·군체육회장들이 체육회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존립과 존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가 심각한 전국의 2만8500여개의 체육시설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4일부터 지방체육의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방체육회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핵주먹’ 타이슨 “내가 돌아왔다”

훈련 동영상 올려 링 복귀 현실화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사진)의 링 복귀가 현실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2일 타이슨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복싱 훈련 동영상을 올렸다고 전했다.

25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타이슨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년의 스피드와 파워를

과시한 뒤 마지막에 “내가 돌아왔다”고 외쳤다. 타이슨은 약 1주일 전 자선 경기를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면서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전자들은 이미 줄을 섰다. 뉴질랜드 럭비 전설인 소니 빌 윌리엄스, 역시 호주 럭비 선수 출신인 폴 깬런이 타이슨과 함께 링에 오를 기회를 잡으려

고 한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에반더 홀리필드가 타이슨의 복귀전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만약 타이슨과 홀리필드가 맞붙는다면 1997년 후 23년 만의 대결이 된다.

당시 타이슨은 세계복싱협회(WBA)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홀리필드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핵야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타이슨은 2005년 6월 케빈 맥브라이드와 경기를 끝으로 링을 떠난 뒤 대마초 농장 사업가로 변신했다. /연합뉴스



여자 아이스하키 엄수연, 미국 대학 1부리그 입성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 결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간판 수비수 엄수연(19·사진)이 미국 대학 1부리그에 입성한다. 엄수연은 미국 뉴욕에 있는 세인트로렌스대에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선발돼 9월 입학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엄수연이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역사를 새로 쓸 날이 머지않았다.

그동안 캐나다 대학 1부리그 진출 사례는 있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의 간판 골리로 활약한 신소정(30)은 캐나다 대학 1부리그인 세인트 프랜시스 자비에르대에서 뛰었다.

대표팀 주포 박종아(24) 역시 캐나다 서스캐터원대에 스카우트되는 기쁨을 안았지만, 캐나다보다 수준이 높은 미국 1부리그 진출은 엄수연이 사상 처음이다.

초중고, 대학을 통틀어 여자 아이스하키팀 하나 없는 척박한 국내 환경을 고려하면 기적에 가까운 성과다.

엄수연은 “최초로 미국 대학 1부리그에 진출하는 만큼 그곳에서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1부리그 팀들과 경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성고-한양대에서 수비수로 활약한 오빠 엄현호를 따라 13살 때부터 스틱을 잡은 엄수연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재목으로 주목받아왔다.

새러 머리 전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감독은 대표팀 내 최고의 재능으로 주저 없이 엄수연을 뽑았다.

엄수연은 키 158cm로 체구는 작지만 타고난 힘



이 좋아서 체격이 큰 서양 선수들과의 문전 앞 몸싸움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는다.

대한아이스하키회는 엄수연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그를 201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콘월에 위치한 아이스하키 전문 교육기관 온타리오 하키 아카데미(OHA)에 파견했다.

선진 시스템 속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엄수연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만 16살의 나이로 국제대회 데뷔전을 치렀다. 2018 평창올림픽에서는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의 1라인 수비수를 도맡았다.

엄수연의 미국 대학 1부리그 진출은 본인의 노력과 협회의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엄수연은 “내가 올림픽에서 뒀던 세인트로렌스대 선수라는 얘기를 학교 측에서 듣고 많이 놀랐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난 너무나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며 “많은 것을 받은 만큼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자력 진출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3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마이 스파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
4관	더 플랫북
5관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9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마션
7관 씨네커머	프리즌 이스케이프,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레이저리플: 뮤지컬 콘서트, 씨 피버
8관 씨네커머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라라랜드 알리타: 배틀 앤젤, 어쩌다 아스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현의 그대를 그리다
5.27. (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